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0, Vol. 32, No. 2, 583-608

한국 이성애자의 동성애 및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탐색적 질적 연구*

정 애 경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 조교수

윤 은 희†
Florida State University
Educational Psychology and Learning Systems
조교수

이 연구는 한국 20-40대 이성애자가 동성애와 동성애자(게이, 레즈비언)에게 가지는 다양한 범주의 정서・인지・행동 태도를 이해하고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를 위해 20세 이상 50세 미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성애자 12명(남 7, 여5)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 102개의 의미진술문이 도출되었고, 이는 47개의 주제로 요약되었으며, 최종적으로 8개의 상위 범주로 재정리되었다. 8개의 범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동성애 및 동성애자에 대해 알게 된 경로', '동성애와 동성애자는 불편함', '동성애를 하고 동성애자가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음', '이성 간 연애 및 결혼, 자녀출산이 당연함', '동성애 차별은 없고, 나와는 관련 없음', '동성애자를 이해하고 싶음',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름', '폭력과 혐오발언은 잘못된 것이지만, 노력은 동성애자가 해야 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정의 맥락에서 성적 지향에 대한 다양성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향후 연구 과제 및 관련 학계의 실천방향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이성애자 태도, 성적 지향, 동성애, 이성애 정상성, 성소수자, 질적 연구, 반복적 질적 분석법

---

* 본 연구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이창국 퀴어연구지원기금(2016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윤은희, Florida State University, College of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and Learning Systems, 3205B Stone Building, 1114 West Call Street, Tallahassee, FL 32306, USA
Tel : 1-850-645-9444, E-mail : eyoon@fsu.edu

www.kci.go.kr

최근 국내 다양한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권혜진 외, 2006; 여기동, 이미형, 2006; 조대훈, 2011; 한국성소수자연구회(준), 2016).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이 모이는 축제인 퀴어 퍼레이드가 매년 여러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고,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소폭이나마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성소수자 수용도는 10점 만점에 3점미만으로 열악한 수준이다(OECD, 2017). 유엔(UN)인권이사회는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나,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채택하지 않았다(연합뉴스, 2018.3.17.). 1973년 미국 정신의학협회가 동성애(homosexuality)의 비(非)병리화를 결정하고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SM)의 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지 약 반세기가 지났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1992년 동성애 대한 성지향을 국제질병사인분류(ICD)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질병이나 장애, 비정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2016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 1388에서 동성애를 치료의 대상으로 설명한 상담자에 대한 고발성 기사가 나왔으며(일다, 2016), 2019년에는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동성애 전환치료를 비롯하여 전문가로서의 태도,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존중 등의 문제로 한 회원이 제명되기도 하였다(한국상담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 2019.02.14). 최근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LGBT(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상담연구회가 조직되고, 관련 학술발표나 워크숍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관한 상담자 훈련이나 교육, 연구. 수퍼비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례로, 석사논문을 중심으로 성소수자 및 성적 지향에 대한 상담자 태도와 관련된 학위논문이 발표되었지만(예: 박정은, 2013; 우사라, 유성경, 2015), 상담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성소수자 연구는 여전히 매우 드물다(정애경, 김태선, 2016).

성소수자 관련 연구는 크게 성소수자 당사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 연구(예: 장지윤, 안현의, 2018)와 비성소수자가 성소수자나 성적 지향・성정체성에 대해서 갖는 태도와 관련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로 나뉜다(예: 김은하, 신윤정, 2016). 성소수자 당사자의 경험은 주로 척도 개발 연구(예: 한국판 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 장지윤, 안현의, 2018; 한국판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 박도담, 유성경, 2019)와 차별경험 및 심리적 경험(예: 김형지, 신정훈, 연규진, 김향숙, 2015; 박정은, 남궁미, 정서진, 2019; 신경희, 2019)을 구체적인 내러티브로 알아보는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탐색되었다. 반면, 비성소수자의 태도와 관련변인 연구는 대상 측면에서 상담자(예: 우사라, 유성경, 2015), 교사(예: 김은하, 신윤정, 2016) 등 교육 및 정신건강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거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방향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고, 비성소수자, 특히 자신을 이성애자로 정체화하는 사람들이 성소수자 중에서도 특히 동성애자 및 그들의 동성애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회심리학 및 상담심리학에서는 성소수자 차별과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결함 모델(social deficiency model; Britton, 1990; Fassinger, 1991)을

www.kci.go.kr

이용하여 사회적 책무성의 측면에서 비성소수자를 연구하고 비성소수자에 대한 개입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성평등을 둘러싼 사회 갈등과 성소수자의 어려움이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 때문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성소수자의 태도나 신념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소수자에 관한 이해나 연구가 아직 초기단계인 우리나라에서 전략적으로 비성소수자인 사회구성원의 태도와 태도를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주목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이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 개념 자체도 낯설어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널리 알려진 성적 지향(동성애, 게이, 레즈비언)과 관련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20-40대 이성애자가 동성애와 동성애자(게이, 레즈비언)에게 가지는 다양한 범주의 정서, 인지, 행동 태도를 질적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국내 이성애자의 태도에 관한 연구는 동성애혐오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살펴본 양적연구로 주로 수행되었다. 국외연구와 마찬가지로 국내연구에서도 동성애혐오는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 권위주의적 성향, 종교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lden & Parker, 2005; Christopher & Mull, 2006; Haslam & Levy, 2006; Roets, Van Hiel, & Cornelis, 2006; 김기환, 김지경, 2012; 서영석, 이정림, 강재희, 차주환, 2007). 남녀대학생 모두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강한 동성애혐오를 보였는데, 이에 더해 남학생들의 경우, 외현적 종교성향이 약할수록, 여학생들의 경우, 권위주의적 성향과 내현적 종교성향이 강하고, 외현적 종교성향이 약할수록 더 강한 동성애혐오를 나타냈다(서영석 이정림, 차주환, 2006). 중 ·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은하와 신윤정(2016)은 권위주의 성향과 동성애혐오간의 관계에서 전통적 성역할의 매개효과는 정서적 공감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는 모형을 검증함으로써,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정서적 공감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동성애혐오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개입연구로는 성소수자와의 의미있는 관계맺기나 성소수자를 다룬 매체 노출이 동성애 차별 인식을 높이고, 동성애혐오를 낮추며(Levina, Waldo, & Fitzgerald, 2000; 김철권, 2013), 동성애 관련 교육활동이나 수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식에 변화가 나타남을 확인하는 연구도 있었다(서영석 외, 2006; 신경희, 2017).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이성애자 태도 연구를 살펴보면, 선행연구는 주로 동성애자의 정신건강 및 복지와 높은 관련이 있는 집단인 상담자(박정은, 2013; 서영석 외, 2007), 사회복지학과 학생(이봉재, 2006), 교사 및 예비교사(김은하, 신윤정, 2016; 신경희, 2017), 의대생(김철권, 2013) 등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그 외 연구는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특징을 지닌다(예: 서영석 외, 2006; 이지하, 심다연, 양민옥, 김혜선, 2014).

지금까지 이성애자 태도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변인 선정 및 연구 설계에서 세 가지 한계를 보여준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는 동성애혐오를 중심으로 이성애자 태도를 연구하였는데, 이는 연구변인 선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낸다. 우선, 동성애혐오만으로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범주의 이성애자의 태도를 적절하게 담아내지 못한다. 또한 혐오연구는 이성애자의 부정적인 태도와 관련

www.kci.go.kr

된 가설만 검증가능하기 때문에 이성애자 태도 연구의 방향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고착시킬 가능성이 높고, 긍정적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이나 개입에 유용한 연구의 시사점을 찾기 어렵다. 더욱 중요하게는, 태도 연구가 이성애자의 감정적인 반응(혐오)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성애자의 불편한 감정이 이성애자로서의 특권이나 이성애중심주의 사고 및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간과하게 한다는 한계가 있다. 즉, 동성애혐오는 공포증과 마찬가지로 마치 동성애 및 동성애자가 문제이며, 이성애자 본인의 문제를 타자화하는 무의식을 반영할 수 있다(Smith, Shin, & Officer, 2012). 둘째, 대부분의 연구가 양적 연구 설계를 활용함으로써 이성애자의 태도의 다양한 층위나 양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인 요인을 통합적으로 탐색하고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기존 이성애자 태도 양적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고, 태도를 주로 단일속성의 연속 변인으로 측정하였으나 이는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비성소수자의 태도의 다양한 모습과는 일치하지 않는다(Nadal, Whitman, Davis, Erazo, & Davidoff, 2016). 또한 이성애자 태도는 이론적으로 이성애 정상성이나 이성애 특권, 가족중심주의 등과 같은 문화적이고 무의식적인 신념과 경험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 이를 뒷받침해줄 관련 실증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양적 연구 설계는 대부분 자기보고식 척도를 활용하는데, 자기보고식 척도를 활용하여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인을 살펴볼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참여자의 인식(awareness) 및 지식수준 등에 따라 응답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여 수행되었는데, 20대와 미혼 집단에서 동성애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가장 낮았다는 다양한 국내 통계조사 결과를 고려해볼 때(한국행정연구원, 2018; Rich,2017), 대학생 결과를 통해 한국 성인 이성애자의 태도를 추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비대학생 성인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와 통계조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변인인 종교, 성별(서영석 외, 2006)이나 교육수준(한국행정연구원, 2018), 혼인여부(Rich, 2017) 등을 함께 살펴 본 국내연구도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범주의 이성애자 태도를 사회문화적 맥락과 함께 탐색할 수 있는 성인 대상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20-40대 이성애자가 동성애와 게이, 레즈비언에게 가지는 다양한 범주의 정서, 인지, 행동을 포함하는 태도를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한국 20-40대 이성애자 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성과 젠더감수성을 높이는 적절한 교육적 개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수행하고 면담자료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는 '한국 20-40대 이성애자가 동성애와 동성애자에게 가지는 태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어떻게 구성되는가?'이다.

방 법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20-40대 이성애자 12명(남 7, 여 5, 평균 33.1

www.kci.go.kr

세)이다. 참여자 선정기준은 (1) 20세 이상 50세 미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거주 중이며 이성애자의 정체성을 가진 성인, (2)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개인”(Creswell, 2010, p. 175)으로 풍부한 언어화가 가능한 자, (3) (1), (2)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 중 접근용이성이 있는 자(Creswell, 2010)로 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교육 정도, 종교 유무, 혼인 여부 및 자녀 유무 등을 기반으로 한 목적적 표집으로 20대, 30대, 40대 남녀 각 2-3명을 선정하였다. 또한 면담과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분석결과를 기초로 추후면담의 참여자를 선정하는 이론적 표집을 사용하였다. 우선, 연령과 교육 정도를 중심으로 추천인을 선정하고, 입소문법을 사용하여 연구와 면담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연구에 관심을 보인 사람들 중 인구통계학적 정보(성별, 종교 등)를 고려하여 연구대상자의 조건을 충족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였다. 연구팀은 추천을 받은 연구대상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연구에 대한 대략적인 안내를 하면서 참여를 권하였다. 이후, 면담 후 분석을 하면서 자료의 포화에 이르기 위해 요구되는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선택하여 다시 연구대상자를 추천받았다. 10번째 참여자부터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지 않음을 관찰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2명을 추가적으로 모집하여 포화상태를 확인한 후 참여자 선정 및 자료 수집을 종료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 12명의 성별, 나이, 학력, 종교, 혼인 및 자녀, 고용형태 분포는 표 1과 같다.

자료수집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승인(P01-201702-22-006)을 받은 뒤,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담은 60분에서 90분가량 진행되었

표 1.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참여자(가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혼인 및 자녀	종교
프란체스카	여	27	학사	사무직	미혼, 자녀 없음	천주교
소연	여	39	학사	영양사	기혼, 자녀 있음	개신교
최택	남	21	대학재학	대학생	미혼, 자녀 없음	개신교
태원	남	32	대학중퇴	IT사무직	미혼, 자녀 없음	없음
존	남	35	고등학교	생산직	기혼, 자녀 없음	없음
경수	남	48	박사	전문직	기혼, 자녀 있음	개신교
슬기	여	20	대학재학	대학생	미혼, 자녀 없음	없음
지원	여	36	학사	방송작가	기혼, 자녀 있음	천주교
선생님	여	39	학사	교육	미혼, 자녀 없음	없음
승렬	남	28	대학재학	대학생	미혼, 자녀 없음	개신교
국이	남	31	학사	사무직	미혼, 자녀 없음	없음
선호	남	41	학사	전문직	기혼, 자녀 없음	없음

www.kci.go.kr

고,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다. 참여자가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이나 경험을 보다 솔직하고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전화면담과 대면면담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대면면담을 원했던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화면담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전화면담의 경우, 최근 질적 연구에서 점점 더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며(Drabble, Trocki, Salcedo, Walker, & Korcha, 2016), 본 연구처럼 민감한 주제의 경우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주므로 더 솔직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Cachia & Millward, 2011). 연구팀은 참여자에게 사전에 연구를 간략히 안내하고 참여의사를 확인한 뒤 동의를 받았다. 그 후, 참여자가 조용한 장소에서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을 알려주면 연구팀이 전화를 걸어 녹음을 다시 한 번 알리고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대면면담과 전화면담 모두 연구자 2인이 함께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였으며, 녹음한 면담 내용은 전사하여 문서화한 뒤 분석에 사용하였다.

심층면담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국외개발 설문도구(김용희, 반건호, 2005; 서영석 외, 2007; 우사라, 유성경, 2015)와 국내외 선행연구(우사라, 유성경, 2015; 이봉재, 2006; Smith et al., 2012)를 참고하여 개방적이고 반구조화된 형식의 질문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심층면담은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확인한 뒤에 "평소 동성애나 동성애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였으며, 참여자의 진술 흐름에 따라 부가적인 질문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참여자의 관찰과 행동(예: "주변 사람들은 동성애나 동성애자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는 편입니까?"), 지인 중 성소수자가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반응(예: "혹시 아는 사람 중에 동성애자가 있습니까? 그 사실을 알기 전과 후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나 그 사람과의 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주요 사회이슈에 대한 의견 및 이유(예: "학교나 직장, 사회에서 동성애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이나 규정, 법안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동성애나 동성애자(게이, 레즈비언)에 대한 한국 20-40대 이성애자의 태도와 그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 Boeije, 2002; Glaser, 1965) 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관련 국내 연구와 태도 및 정서를 측정하는 국내개발 척도가 아직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복잡하고 미묘한 개인의 정서와 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량화와 계량화를 중심으로 한 양적연구에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특히 근거이론의 자료 분석 방법 중 하나로 다양한 연구에서 질적 자료의 심도 있는 이해를 돕는 방법(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으로서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반복적 비교분석법은 특히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자료를 수집하는 반복적인 과정이 특징이다(유기웅 외, 2012). 자료 수집과 분석이 유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포화상태에 대한 결정이 용이하여 한국 20-40대

www.kci.go.kr

이성애자의 태도라는 다소 광범위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기에 적합한 방법이었다.

연구팀은 상담전공 박사 2인으로 성소수자 상담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성소수자 상담 및 연구, 국내외 성소수자 관련 상담자 교육훈련, 자문 및 강의 등 다양한 학술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과정 내내 연구팀은 정기적으로 판단중지 과정을 거침으로써 연구자의 선경험과 선가정으로 인해 참여자의 보고를 왜곡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Barritt, Beekman, Bleeker, & Mulderij, 1985). 또한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 중에 성소수자 관련 상담 및 연구 가이드라인(예: 미국심리학회, 미국상담학회 및 미국성소수자상담학회)을 참고하고 이를 준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반복적 비교분석법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1단계인 개방 코딩(open coding)단계는 텍스트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를 높이는 과정으로 심층면담 축어록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이성애자의 태도와 영향요인에 대한 의미 있는 진술을 찾아 이름을 붙이는 작업이다. 개방 코딩을 통해 전사된 인터뷰 내용을 보다 축약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2단계는 범주화(analytic coding)단계로 1단계의 개방 코딩으로 정리된 자료를 다시 상위범주로 범주화하여 분류하고, 범주에 이름을 붙이는 과정이다. 새로 도출된 범주와 개방코딩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반복적 비교분석법(유기웅 외, 2012)에 따라 본 연구팀은 이론적 표집과정과 함께 개방 코딩 및 범주화 과정을 꾸준히 반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범주화 작업을 마친 후, 범주 구성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원자료와 비교하면서 확인하는 절차가 3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2단계로부터 도출된 범주가 원자료를 잘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범주를 수정한다(김윤옥 외, 2009). 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범주가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서 드러내고 있는 한국 20-40대 이성애자의 태도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범주화 과정을 마무리지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을 고려하였다(Lincoln & Guba, 1985). 우선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론적 표집을 사용하여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성적지향에 대한 다양한 태도와 성향 등을 가진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특히, 인터뷰 직후 개방 코딩을 하고 개방 코딩에서 발생한 궁금한 점에 새로운 정보를 더해줄 참여자를 새롭게 모집하였으며, 다시 이를 개방코딩에 반영한 뒤 범주화를 하고, 새롭게 도출된 범주에 대한 반증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새로운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가 한국 20-40대 이성애자의 보편적인 태도를 적절하게 대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도 참여자 중 한 명에게만 해당되는 특수한 진술이 나온 경우(예: 자녀, 종교 등)에는 이를 확인해줄 다른 참여자를 섭외하여 보편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둘째,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 과정 중 발생했던 동성애자 및 성소수자 관련 이슈 및 사건(예: 19대 대선 후보들의 성소수자 관련 발언, 군형법 제92조 6항,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한 기사 및 관련 반응을 검토하였으며,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범주가 한국사회의 동성애

www.kci.go.kr

관련 이슈에 대한 반응과 얼마나 유사한지 확인하였다. 셋째,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적연구경험이 있고, 성소수자 상담 및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상담심리학 박사 1인에게 연구결과(원자료, 개방코딩, 범주화)에 대한 자문과 감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층면담과 분석 과정에서의 연구자의 개인적인 반응과 편견 등을 따로 기록함으로써 참여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연구자 간 개방 코딩과 범주화 작업에 대한 교차검증을 수행하였다. 우선 소수의 사례를 각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분석한 뒤, 연구자간 결과를 비교하고, 표현이 다른 경우 합의에 이를 때까지 논의하였으며, 새로운 사례를 더할 때마다 이 과정을 반복하였다.

결 과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통해 동성애나 동성애자(게이, 레즈비언)에 대한 한국 20-40대 이성애자의 태도를 살펴본 결과, 총 102개의 의미진술문이 도출되었고, 이는 47개의 주제로 요약되었으며, 최종적으로 8개의 상위범주로 재정리되었다. 표 2와 같이, 최종 8개의 상위범주는 '동성애 및 동성애자에 대해 알게 된 경로', '동성애와 동성애자는 불편함', '동성애를 하고 동성애자가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음', '이성 간 연애 및 결혼, 자녀출산이 당연함', '동성애 차별은 없고, 나와는 관련 없음', '동성애자를 이해하고 싶음',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름', '폭력과 혐오발언은 잘못된 것이지만, 노력은 동성애자가 해야 함'이다.

표 2. 이성애자 태도 범주화 결과

상위범주	하위 주제
동성애 및 동성애자에 대해 알게 된 경로	지인이 있음
	소문/가십, 지인 경험이나 매체를 통해 알게 됨
	만나보거나 이야기해 본 적 없음
동성애와 동성애자는 불편함	혐오감을 느낌
	강한 거부감을 느낌
	불편한 마음이 듦
	위협을 느낌
	용납할 수 없음
동성애를 하고 동성애자가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음	동성애의 원인이 있다고 믿음
	동성애자들에 대한 부정적 가설과 정보를 가짐
	동성애와 이성애를 비교함
이성 간 연애 및 결혼, 자녀출산이 당연함	결혼과 출산이 중요한 가치임
	성에 따른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음
	이성애 관계가 정상이고 규범이라고 인식함

www.kci.go.kr

표 2. 이성애자 태도 범주화 결과 (계속)

상위범주	하위 주제
동성애 차별은 없고, 나와는 관련 없음	동성애 차별은 없음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함
	누구나 존중받아야 함
	차별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음
	동성애자는 보호받아야 할 소수자가 아님
	성소수자 운동의 진정성을 의심함
	나와는 상관없음
	인간적인 존중과 감탄을 느낌
	옹호자로서 정체성을 고민함
	자기태도를 성찰하고 배우려고 함
	동성애자가 노력해야 함
	이성애중심사회라는 것을 인식함
	동성애자의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음
	내가 불편하지 않았으면 함
	성소수자 인권 옹호가 비성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함
동성애자를 이해하고 싶음	동성애가 이해가 안 됨
	머리로는 이해하나 가슴으로 안 와 닿음
	동성애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함
	평범성에 주목하여 비슷한 점을 발견함
	아픔에 대해 공감함
	우호적으로 생각함
	이해하고 있음
	어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함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름	한국은 특징적인 문화를 가짐
	한국과 외국과의 공통점이 있음
	동성애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함
	동성애는 외국문화이며 한국에 안 맞음
폭력과 혐오발언은 잘못된 것이지만, 노력은 동성애자가 해야 함	성소수자가 변화의 역할을 해야 함
	혐오의견도 의견과 취향으로 존중함
	차별과 혐오발언에 대한 대응이 어려움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법제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함

www.kci.go.kr

동성애 및 동성애자에 대해 알게 된 경로

참여자들이 동성애 및 동성애자에 대해 알게 되고 접하게 되는 경로는 크게 직접 경험과 지인이나 매체를 통한 간접 경험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 중 몇몇은 지인 중에 게이나 레즈비언, 혹은 게이나 레즈비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지인 중 가까운 사람이 동성애자인 경우, 그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동성애자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였다.

> "그래서 걔네(친구들)가 동성애자인 걸 안 뒤로는, 그런(동성애가) 되게 신기하니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걔네랑 얘기도 하면서 지금 거부감 같은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승렬)

지인 중 게이나 레즈비언이 없는 경우, 어떤 참여자들은 자기 주변에는 실제로 동성애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참여자들은 지인 중 동성애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자신이 이들에게 충분히 신뢰를 주지 못하거나 상황 상 커밍아웃이 어렵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간접 경험으로는 소문이나 가십으로 접한 경우, 지인의 경험으로 듣게 된 경우, 영화, 소설, 인터넷, SNS 등의 매체로 접한 경우, 학내 성소수자 공동체를 통해 알게 된 경우 등이 있었다. 그러나 참여자 대부분은 동성애 관련 현안(차별금지법이나 인권조례 제정)이나 사회적 이슈(대선주자의 동성애 관련 발언), 이벤트(퀴어 퍼레이드)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관심이 없다고 말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동성애나 동성애자에 대한 이야기가 대화 주제로 거의 나오지 않으며, 이 주제를 따로 생각해본 적이 많지 않거나 거의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간접 경험에서 참여자들은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성소수자를 주제로 한 글이나 영상을 우연히 접하거나 주변의 추천으로 선택하여 알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일부는 부정적 정서와 인지가 강해졌다고 한 반면, 몇몇은 매체 경험으로 인해 동성애자의 상황에 공감이 되고 그들을 더 잘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프란체스카는 성소수자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나 프로그램을 관람한 후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느끼고 부정적인 생각이 더 강해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이, 선생님, 슬기는 관람 후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며, 매체에서 동성애자의 삶을 흥밋거리나 자극적인 소재로 다루는 것이 아쉬웠다고 비판적으로 언급하였다.

> "다른 남녀 간의 막 예쁜 키스신 이런 거는 아, 진짜 멋있다, 너무 예쁘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화에서)뭔가 동성끼리 그렇게 하니까 너무 이상한 느낌. 너무 이상하고 막 좀 그랬어요. 낯선 느낌도 있었고. 낯설고, 뭔가 그냥 별로 보기 싫은." (프란체스카)

> "보기 전에는 그냥 그런 사람들(동성애자)이 그냥 어떻게 사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 전혀 아무 것도 몰랐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도 웹툰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또 상처를 많이 이렇게 받고 살아가는지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조금은 그래도 느끼고 그랬던 거 같아요." (국이)

www.kci.go.kr

동성애와 동성애자는 불편함

참여자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가진 동성애 및 동성애자에 대한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들을 나타냈다. 대표적인 반응으로는 “더럽다”, “싫다”, “불편하다”, “용납할 수 없다”, “위협적이다” 등이 나타났다. 특히, 혐오 반응이나 강한 부정적 정서는 참여자가 주로 동성 간 호감, 성적 친밀감, 성관계에 대해 언급을 할 때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몇몇은 실제로 경험한 적은 없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호감을 거부하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동성애자가 접근하거나 강요하는 상황을 상상하면서 이를 위협적으로 지각하고 더욱 강하게 부적 정서를 표현하였다.

참여자들이 주변에서 주로 관찰하는 부정적 반응의 종류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자기 자신이 경험한다고 보고한 부정적 정서의 정도나 종류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개인차와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참여자 대부분 동성애자 및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싫다”)과 불편감(“익숙하지 않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성애자에 대한 강한 혐오감(“더럽다”)과 위협감(“무섭다”), 용납불가(“용납할 수 없다”)의 반응은 일부 참여자만 보고하였다.

동성애를 하고 동성애자가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음

참여자 중 일부는 동성애나 동성애자에 대한 여러 정보와 가설, 고정관념 등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동성애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크게 생물학적 원인이나 장애, 역기능적 가정환경이나 잘못된 양육방식, 이성에게 받은 상처나 성폭력 경험, 발달지연, 감정에 대한 착각이나 잘못된 해석,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수단, 과다하거나 무절제한 성욕 등이었고, 하나 이상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동성애자가 된다”고 보고 있었다. 이러한 원인론은 자연스럽게 이들이 동성애를 치료 및 개선의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 “(동성애의 원인을)분석을 해서 그거(동성애)에 대한 어떤 심리치료를 좀 발달시키자, 약간 이런 교육이나 치료를 통해서 그 사람(동성애자)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그러니까 ‘올바르게’ 라는 표현도 조금 그렇긴 한데요. 그게 암튼 만약에 그게 상처(때문이)라면, 그게 올바른 이라고 써도 되는 거잖아요” (최택)

이와 더불어 이들은 동성애 지향은 일시적으로 젊을 때 나타나는 감정일 수 있으며, 선택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음에도 동성애자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한, ‘동성애자들은 성병과 에이즈를 유발한다’, ‘동성애자가 성범죄를 일으킨다’와 같이 동성애를 위험요인이자 혐오요인으로 지각하는 내용이 많이 보고되었다. 특히, 동성간 성폭력이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가해자를 동성애자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게이는 여성스럽다’, ‘동성애 관계에서 남자역할, 여자역할이 나누어져있다’와 같은 성역할 및 젠더표현과 관련한 고정관념도 나타났다. 몇몇 참여자들은 ‘동성애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동성애 관계가 이성애 관계와 비교하여 불완전하다고

www.kci.go.kr

믿고 있었다.

이성간 연애 및 결혼, 자녀 출산이 당연함

참여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이성 간 연애와 혼인이 중요하고, 정상으로 인정되며, 남녀가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만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을 자주 드러냈다. 참여자들은 이성 간 연애만을 정상으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등에서도 등장인물들의 이성 간 연애를 주로 다루고 기대하며, 이에 따라 동성 간 연애가 정상에서 벗어나는 관계로 간주된다고 보았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성인이라면 성관계를 통한 출산이 가능한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규범적 기대가 있으며, 결혼과 자녀 출산을 통해 "진정한 사회구성원"이 되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책임의식을 갖는다고 보았다.

참여자들 중 일부는 이성 간 연애와 결혼 후 출산을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이성애자라고 모두 결혼을 하거나 결혼 후 자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동성애 관계는 원천적으로 자녀 출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되었으며, 이성애 관계와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이들 중 기독교(개신교 및 천주교) 신자는 종교 교리 및 윤리에서 근거를 찾았다.

> "어렸을 때 기독교 신앙 때문에 그런 편견이 있으니까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어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 이런 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갖게 된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최택)

> "성관계를 하든 뭘 하든 이성하고 하는 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오히려 그게(이성관계가) 더 기회가 있을 텐데" (경수)

> "여태까지 몇 천 년에 걸쳐서 이렇게 자녀를 낳고, 뭐 자식도 출산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를 이어오는 이런 어떤 인간만의 고유한 그런 거를 (동성애는) 끊는다는 건가요? 그런 거잖아요." (소연)

한편, 몇몇 참여자들은 우리 사회가 이성 간 연애와 결혼을 강조하고, 자녀출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이에 동의하기보다는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 "어떤 매체나 이런 걸 봐도 다 남자와 여자의 그런 이야기들이고, 또 이 사회에서 결혼을 되게 중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출산율이나 이런 얘기할 때 동성애는 뭐 출산율에도 기여 못하는데 이런 거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슬기)

이들은 사람들 간 대화나 관계가 이성 간 연애나 결혼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형태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다양한 성적 지향에 대해 공부하거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현실을 언급하였다.

www.kci.go.kr

"연애 권하고 이성애 권한다.. 왜냐면 그냥 기본 질문이 '결혼하셨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단어들이 다 그냥 당연히 이성, 당연히 이성애겠거니(가정하고 있어요)" (지원)

선호는 자신에게는 여전히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고, 동성애를 통해 출산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강제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구분 지었다.

동성애 차별은 없고, 나와는 관련 없음

참여자들은 동성애자가 별다른 차별을 경험하지 않으며, 동성애 차별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우리 사회에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발언과 거부감이 만연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 대부분은 동성애자에 대한 실제적인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나 예방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프란체스카는 회사에서 동성애자로 알려지면 "좋게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동성애자라고 공식적으로 여기 출입하지 말라"는 제재가 없으므로 "사회에서 차별을 하는 건 없는 것" 이라고 말하였다. 경수도 "인권이 유린되는 현상"이 없다고 보고, 그런 상황에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말한다.

"느닷없이 동성애자도 존중받아야 된다, 동성애자도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되어야 된다 이러는데 아니 누가 수용을 안했으며 누가 인권을 존중을 안했으며.."(경수)

참여자들 대부분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중을 받아야 하고,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사회는 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와 거부감이 심하다고 이야기한 선생님도 성적 지향은 프라이버시이며, 당사자가 동성애자라고 말을 안 하면 모르기 때문에 차별이 심각하지 않다고 말하였다.

"취업하는데 굳이 그런 걸(성소수자임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중략) 그건 굉장히 사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회사는 공적인 부분이고. 회사에서 그걸 굳이 그런 사적인 부분을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취업할 때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선생님)

소수만이 우리 사회에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이 있고 동성애자에 대한 성적대상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에 저항하는 사회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거(동성애)는 자신의 정체성인데 (대선)TV토론에서조차 이런 거 반대해야 된다, 이거는 에이즈를 퍼뜨린다 말이 되냐 이러는 거 자체가 다 차별이고 불평등이라고 생각해요" (슬기)

www.kci.go.kr

동성애자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인식과 그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참여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동성애자 및 관련 이슈와 상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비하 및 혐오발언에 대해서도 굳이 에너지를 쓰거나 개입하여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참여자들이 다수였다. 예를 들어, 태원은 지인 중 동성애자가 있지만, 자신과 대다수 사람들이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성소수자나 그들의 권리에 굳이 관심을 가져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더 나아가 참여자 중 소수는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비성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성소수자들이 한국사회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외국에 거주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또한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성소수자 당사자가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의도와 목적을 가진 집단이 성소수자 인권을 이슈화시키고 이용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도 있었다.

>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 말하는 사람이 일단 진짜 동성애(자)인지가 먼저 궁금해요." (최택)

한편, 지원이나 슬기와 같은 참여자 중 일부는 한국사회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감탄을 드러내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공격이 불편하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개입하거나 공개적으로 옹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승렬은 동성애자가 성적 지향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런 점이 갈등과 혐오를 키우는 것 같다면서 "오히려 그런 거(성적 지향)를 이제.. 묻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조화롭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참여자 중 몇몇은 인터뷰 도중에도 자신의 역할이나 정체성을 고민하고, 동성애 관계나 동성애자에 대한 자신의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깨닫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다.

> "제가 일단 (동성애에 대해)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략) 좀 방관자적인 자세로 항상 있었구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중략)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뭘 해야 된다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던 거죠." (선생님)

동성애자를 이해하고 싶음

참여자들은 이성애자로서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동성애에 대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참여자는 동성애가 생소하고, 나랑 다르기 때문에 동성애자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표현하였다. 특히 동성애적 성적 지향을 선택할 수 있고 성적욕구를 통제하지 못해 동성애자가 된다고 믿는 경우, 동성애혐오가 있는 우리 사회에서 "굳이 동성애자되기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도 못하고. 뭐 그러는데.. 되게 사회에서 그것도 좋게 보는 것도 아닌데.. 굳이 모든 걸 그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굳이 그렇게 해야만 할까?" (프란체스카)

www.kci.go.kr

또한 머리로는 이성애와 동성애 모두 사랑이라고 이해해도 “가슴으로” 수용이 잘 안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직업적인 상황에서 성소수자를 만나야하거나 만약 가족 중에 성소수자가 있다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감싸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인 중 게이가 있는 태원의 경우, 동성애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성적 지향을 제외하면 지인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어떤 참여자들은 성소수자로서 살아가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 공감과 연민을 느끼면서 동성애자가 비록 성적 지향은 다르지만 자신과 별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 “(동성애자는)굉장히 특별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드라마를 보고 난 이후에 아 그냥 굉장히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냥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그냥 아저씨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사랑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다.” (선생님)

특히 이들은 성적 지향이 사랑의 한 종류로서 이해와 존중의 문제이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국이와 선생님의 경우, 자신은 동성애나 성소수자에 대해 잘 모르지만 알아가고 싶다면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성소수자가 있다면 더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지원의 경우, 장애로 차별을 당하는 가족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고통에 노출되었던 경험이 성소수자의 차별경험에 더욱 공감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성소수자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름

참여자들은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특수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른 나라와의 문화적 차이나 공통점에 대해 언급하였다. 동성애자가 겪는 가족의 반대가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 특히 심할 것 같다고 주로 언급되었다. 일부 참여자는 외국에는 동성애자가 많이 존재하고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사회인 반면 한국에는 동성애자가 거의 없거나 외국과 비교하여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분위기가 동성애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따라서 몇몇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동성애나 성소수자에 대한 논의는 외국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것이며, 이것이 한국사회에 “유효한” 이슈인지 의문을 갖고 있었다.

> “엄밀하게 말하면 정말 한국사회에 그런 일(동성애)이 있는가 부터(확인해야 한다)... (중략) 그러니까 미국은 레즈비언, 뭐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뭐 난리겠지만, 아니 이게 거기서 배웠다고 해서 갑자기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면...(중략)...이거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마치 그런 일(성소수자)이 막 옆에 있는 것처럼 다 교육받고 난리를 쳤는데 (성소수자가 한국에) 없으면 어떡해” (경수)

그러나 또 다른 참여자들은 한국사회가 성소수자에게 부정적이며, 긍정적인 변화가 일

www.kci.go.kr

어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현재 한국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취향이나 찬반문제로 인식하며,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고,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동성애자들이 사회에서 이해받기 어려운 것은 비슷하며, 우리사회에서도 오래전부터 동성애자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 "동성애도 그렇지만 동성애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배타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국사회가) 많이 막 개선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호)

이들은 한국사회에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조하는 유교사상이나 기독교 교리의 영향이 크고, 상대적으로 성적 지향에 대한 교육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가 높고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참여자들은 자신의 부모세대가 동성애자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믿고 있었다.

폭력과 혐오 발언은 잘못된 것이지만, 노력은 동성애자가 해야 함

참여자들은 자신과 한국사회가 동성애혐오와 차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만약 이를 해결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여자 대부분은 동성애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이나 공개적인 혐오발언을 불편해하며, 이를 '잘못된' 행동 혹은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중 다수는 굳이 그러한 상황이나 상대방의 발언에 대응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대화주제를 바꾼다고 대답하였다. 참여자 대부분은 동성애자에 대한 공격적인 생각과 사석에서의 혐오 발언 또한 의견이나 취향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믿었다.

> "(지인이 혐오발언을 할 때)감정을 내가 소모해야만 해서까지 걔네(동성애자)가 이거는 아니다 라고 얘기해주기도 그렇고, 그냥 네가 싫은 건 네가 싫은 거지. 이런 거, 그건(싫어하는 것)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태원)

> "이 문제 자체가 동성애라는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할 수 없듯이 그 사람들(성소수자)에 대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에서도 저는 찬반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호)

참여자 중 일부는 혐오 발언 등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성소수자 관련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중 지원은 상황에 따라서 유머 등을 사용하여 혐오발언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밝힌 유일한 참여자였는데, 싸우거나 설득하기가 힘든 문제여서 무력감을 느끼고 고민이 크다고 이야기하였다.

> "(혐오발언을 하는)그 사람을 막 어떻게 앉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제 능력도 안 되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걸로 부딪히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불편

www.kci.go.kr

해요. (중략) 사실은 저도 이제 그렇게 에너지가 없어서 싸우거나 뭘 막 설득하거나 그럴 힘이 없어요. 그냥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웃음) 그건 거 같아요." (지원)

성소수자 인권 관련 법제화(예: 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 대해서는 참여자들 간에도 의견 차이가 컸다. 사회적 합의가 왜 어려운지 이해하기 어렵고 인권법(차별금지법)과 동성혼 모두 합법화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참여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는 법제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너무 빠른 변화는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갈등을 키울 것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이후에 관련 법규가 단계적으로 서서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인식전환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들은 대중문화 콘텐츠를 매개로 다양성을 강조하고, 국가적으로 다양성과 관련된 학교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참여자 대부분은 이러한 사회변화의 책임이 당사자인 동성애자에게 있으며, 동성애자가 인식전환과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하였다. 즉, 동성애자가 목소리를 내고 정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성애자들을 설득하고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동성애자가)이성애자와의 진솔한 얘기를 많이 하면은 그게 확산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몰라서 그냥 막연히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성소수자임)를 숨기려고 하기 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지인을 시작으로 어떤 얘기를 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승렬)

"(성소수자에게는)불합리하게 느껴지고 그러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죠. (중략) 문제의식을 좀 표출을 하고.. (중략) 우리 사회에서도 (성소수자가) 소수라고 만은 볼 수가 없다 이런 어떤 의식이 갖춰지면 그제서야 법적인 어떤 그런 게 갖춰질 거고 (중략) (성소수자가)처음엔 불평등과 어떤 불이익을 받겠죠. 법적인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건 느끼겠지만, 그런 거는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존)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이성애자인 자신은 동성애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사회적 인식전환이나 긍정적 변화를 위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통해 동성애나 동성애자(게이, 레즈비언)에 대한 한국 20-40대 이성애자의 태도를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8개의 상위범주를 도출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의 태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정서, 인지, 행동적 요인을 자세히 탐색하고자 하였다. 최종 8개의 상위범주는 '동성애 및 동성애자에 대해 알게 된 경로', '동성애와 동성애자는 불편함', '동성애를 하고 동성애자가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음', '이성 간 연애 및 결혼, 자녀

www.kci.go.kr

출산이 당연함', '동성애 차별은 없고, 나와는 관련 없음', '동성애자를 이해하고 싶음',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름', '폭력과 혐오발언은 잘못된 것이지만, 노력은 동성애자가 해야 함'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한 시사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의 태도는 동성애 및 동성애자에 대한 경험, 경험에 대한 참여자들의 관여 정도, 경험에 대한 해석과 관련이 있었다. 지인 중 가까운 사람이 동성애자인 경우, 그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동성애자에 대한 생각과 정서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비성소수자가 성소수자와의 의미 있는 관계를 경험하면서 성소수자를 이해하고 자신을 지지자로서 정체화한다는 국외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Asta, & Vacha-Haase, 2013; Ji & Fujimoto, 2013). 흥미로운 점은 성소수자 지인이 없는 참여자들의 경우,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동성애나 성소수자에 대해 알게 되는 점은 비슷하였으나, 참여자 중 일부는 매체를 접한 이후 여전히 불편감과 불쾌감을 느끼는 반면, 또 다른 이들은 동성애자들을 더욱 가깝게 느끼고 이해하며 공감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성소수자 친화적이거나 성소수자를 긍정적으로 묘사한 매체일지라도 그 내용에 대해 거리를 두고 관찰하거나 판단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오히려 매체를 통해 기존의 부정적인 정서나 사고를 확인하는 확증편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매체노출이 동성애 차별과 인식개선에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국내외 연구결과(Levina et al., 2000; 김철권, 2013)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인데, 이는 매체노출과 태도 변화 사이에 자기성찰이나 인지의 역할을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처럼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 다양하고 긍정적인 매체에 노출되는 것 자체보다는 이성애자가 매체에서 다룬 내용을 어떻게 인지하고 자신을 성찰하는지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매체노출을 사용하는 교육적 개입은 사고와 자기성찰에 초점을 두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동성애나 동성애자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이 주제를 따로 생각해본 적이 많지 않거나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이 우리 사회의 동성애 관련 현안이나 사회적 이슈, 이벤트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관심이 없었다. 국외에서 개발된 척도 중에는 비성소수자 및 상담전문가의 동성애 관련 태도를 측정할 때 성소수자 공동체, 사회적 이슈, 상징,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 정도가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Worthington, Dillon, & Becker-Schutte, 2005),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 중에서도 소수만이 관련 현안이나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성소수자 공동체나 역사, 상징 등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이성애자가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와는 유리된 현실 속에 심리적·정서적 거리를 두고 살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성소수자의 비가시성(invisibility)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참여자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가진 동성애 및 동성애자에 대한 다양한 혐오반응과 부정적인 정서를 보고하였다. 참여자들 대부분은 동성애나 동성애자에 대한 거부감과 불편감을 보고하였으며, 특히 일부가 거부감과 불편함에 더해 혐오감과 위협감, 용납불가와 같은 강한 혐오적 정서반응을 나타낸 것은 특징적이다. 특히 이들의 혐오와 강한 부정적

www.kci.go.kr

정서적 반응이 동성 간 성적 친밀감이나 성관계에 대한 참여자의 상상과 가상의 성희롱 및 성폭력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성소수자가 주로 경험하는 미묘한 차별과 고정관념 중의 하나로 성범죄 의심 및 과잉성애화(over-sexualization) 인지가 지목되었던 연구결과(Platt & Lenzen, 2013)와 맥락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참여자의 강한 혐오반응은 동성애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지식, 고정관념 및 편견과 함께 보고되었는데, 후속 연구는 이러한 가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참여자들은 우리 사회에는 남녀가 이성애와 결혼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는 것만이 정상이고 자연스럽다는 인식이 있다고 자주 언급하였다. 참여자 일부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기대를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정상'에서 벗어난 동성애자 및 관련 이슈는 자신과 상관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몇몇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거리를 두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 이성애 연애와 혼인만이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는 이성애 정상성(heteronormativity)이 만연함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이성애 정상성이 출산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동성애혐오가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이성애중심의 가족구조에 대한 믿음, 인습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는 권위주의적 성향과 관련되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김은하, 신윤정, 2016; 서영석 외, 2006).

그러나 참여자들이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발언이나 사회전반적인 거부감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없다고 언급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참여자들 대부분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고, 성적 지향이 혐오발언이나 폭력 등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성소수자 차별이 실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과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이성애자로서 특권 인식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성애자로서의 특권은 결혼, 자녀양육, 입양 등에서의 권리, 세금이나 보험 혜택 등의 제도적인 보호, 관계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인정, 표현의 자유 등이 포함하며, 이성애 특권 인식은 성소수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옹호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어 왔다(Gonsiorek, 1991). 대부분의 참여자가 이성애자로서 자신의 특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성애 특권을 보여주는데, 이성애자로서 자신을 정체화하는 과정 없이도 이성애 정상성이 바탕이 된 사회의 주류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Herek, 1990). 본 연구결과는 이성애 특권에 대한 인식 부재가 동성애자에 대한 제도적 · 사회적 차별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며, 이성애자로서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인식하지 못한 채 동성애자 차별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행동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참여자들이 동성애자가 커밍아웃 이후 경험하는 따돌림이나 폭력을 언급하면서도 사회변화를 위해서는 동성애자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동성애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모순은 이성애자 옹호자가 자신의 특권에 대한 인식 없이는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개선하는 데 이성애자의 역할과 책임에

www.kci.go.kr

대해 생각하기 어려움을 시사하며 이러한 가설은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20-40대 이성애자는 동성애자에 대한 정서 및 인지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으며 동성애자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많지 않은 가운데 이성애자의 태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성애자의 태도는 자기성찰적 태도, 동성애 및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고정관념의 부재, 성적 지향 및 성(sexuality) 발달과 관련한 지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참여자 중 일부는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인식(self-awareness)하고 수용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경험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인지하였는데, 자기 성찰적 태도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이 필요한 지점이다. 또한 일부 참여자가 자신의 강한 혐오나 부정적 정서의 원인으로 동성애 및 동성애자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지식을 근거로 하거나 과잉 성애화 등과 같은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언급한 점은 성적 지향 및 성발달 관련 지식의 오류와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이 이성애자의 부정적 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할 양적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참여자 중 일부가 동성애 및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언급할 때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에 동성애자가 외국만큼 존재하는지 의문을 갖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 연장선상에서 동성애 인권이 해외에서만큼 국내에 유효한 이슈가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우리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소수자의 존재가 가시화되기 어려운 상황 때문이지만(유엔 시민정치 권리규약 위원회, 2015), 성적 지향이나 성 발달에 관한 진단 및 지식이 주로 서양 정신의학 및 심리·상담학계를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으며,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나 교육은 물론 학계의 관심조차 미미하며 논의가 부진한 것 또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참여자들이 보고한 성적 지향이나 성 발달과 관련한 '지식'은 대부분 관련학계에서 이미 오래전에 폐기한 진단체계를 근거로 한 병리적 관점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은 우리 사회에서 유통되는 부정확한 지식의 위험성과 폐해를 보여주며, 우리 학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확한 정보와 전문지식이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성적 지향 혐오와 차별에 대한 이해가 자신이 우리 사회의 주류로서 경험하고 있는 이성애 특권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성애 특권의 형태와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참여자 대부분이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나 부정적 분위기를 차별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이성애자로서 경험하는 특권과 차별의 부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가 동성애자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공감이나 이해보다는 사회구조적 맥락에 대한 이해와 더 큰 관련을 맺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성소수자에 대한 공감이 오히려 권위주의적 성향이나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에게는 동성애 공포를 키울 수 있다는 선행연구(김은하, 신윤정, 2016)와 맥락을 함께 한다. 또한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성애나 동성애자에 대해 따

www.kci.go.kr

로 생각해본 적이 거의 없다고 보고한 점이나 대다수가 동성애 관련 현안이나 사회적 이슈, 이벤트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관심이 없다고 보고한 것을 미루어볼 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동성애자의 권리나 삶에 대해 나와 상관없는 타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여자 중 한명인 지원이 언급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소수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성애자가 개인적 차원의 공감과 사회구조적 차별을 연결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자신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성애자 태도에 있어서 개인적 차원과 사회구조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가설을 검증하고, 그 영향력을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다양성 교육에서는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적인 사회구조적 맥락에 대한 인식을 키우는 동시에 이성애자가 누리는 일상적인 사회구조적 특권을 발견하고 공동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참여자들 대부분이 동성애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혐오 행동이나 발언을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것을 개인의 의견이자 취향으로 생각한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서 혐오나 차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적절한 교육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동성애 혐오표현이 성소수자의 신체적・심리적・관계적 건강 및 행동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부정적 영향력은 이미 다수의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왔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4. 27; 김진이, 2017; 이호림, 2015).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대상이 되는 집단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한 권력관계 및 차별구조를 강화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혐오표현이 대상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적대, 선동에 해당되는 경우, 문화적・제도적으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서울대학교인권센터, 2017). 본 연구의 참여자들을 통해 드러난 것과 같이 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폭력만을 차별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문화구조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면, 혐오표현에 대한 개인적인 대처나 노력에 기댈 것이 아니라 혐오표현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많은 참여자들이 혐오에 대한 반대나 성소수자지지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지점이다. 참여자들이 동성애자 혐오에 대해 저항하거나 성소수자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동성애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도 2019년 2월 14일 회원 제명과 관련한 입장표명에서 “동성애 찬반논쟁에 대해서 그 어떤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밝히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한국상담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 2019.02.14.). 상담심리학에서 사회정의 및 옹호가 중요한 가치와 역할로 떠오르는 시대(임은미, 2016; 최가희, 2018)에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 이슈에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문화적・제도적 차원의 보호를 촉구하기 위한 학계차원의 지지와 옹호활동이 필요해 보인다. 많은 인권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우선적인 개선사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www.kci.go.kr

의 제정이다(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17).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보태기 위한 학회 차원의 적극적인 입장표명과 관련 사회옹호 교육 및 인식개선 활동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20-40대의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장년층 및 노년층 비성소수자가 동성애 및 동성애자에 대해 갖는 태도는 이와 다를 수 있다. 참여자들은 부모세대가 자기 세대보다 훨씬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성적 지향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보고한 것을 미루어볼 때, 후속연구에서는 장년층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태도와 형성요인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심층면담을 통해 드러난 이성애자의 태도는 자기 보고이기 때문에 실제 참여자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나 동성애자 당사자가 직접 경험하고 인지하는 이성애자의 태도와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진은 자문단계에서 동성애자 당사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법도 논의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드러난 동성애혐오 및 부정적 편견의 수준을 고려할 때, 자문에 참여하는 이가 입을 정신건강적 피해 및 해악이 그를 통해 얻게 될 연구의 엄정성보다 크다고 생각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자기 보고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적 바람직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재적 연관성 검사(implicit-association test), 시나리오 연구 등 실험연구나 동성애자가 경험한 동성애자의 혐오와 차별, 혹은 옹호와 지지를 탐색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참여자에 종교인과 비종교인이 섞여 있었는데, 이 중 종교인으로 자신을 정체화한 사람들은 모두 기독교인(천주교와 개신교)으로서, 참여자에 불교인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특히 한국 조계종에서 성소수자를 비롯한 차별에 대한 반대를 공식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이경민, 2015. 6. 17.), 연구 참여자에 불교인을 포함했더라면 이 연구에서 도출된 범주와 다른 새로운 범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종교인을 포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혜진, 김경희, 함미영, 염순교, 조주연, 최미혜 (2006). 남자 중학생의 성허용성, 성태도 및 성정체성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5(1), 99-108.

국가인권위원회 (2017.4.27.). 인권위, 차기정부 10대 인권과제 확정… 대선 후 대통령에 전달.

김기환, 김지경 (2012). 교사의 권위주의와 자기애 성향이 학생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교원교육, 28(2), 49-73.

김용희, 반건호 (2005). 한국판 동성애 공포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3), 327-336.

김윤옥, 박성미, 박소영, 손미, 신경숙, 이은화, 황희숙 (2009). 질적연구 실천방법. 경기: 교육과학사.

김은하, 신윤정 (2016). 중・고등학교 교사의 권위주의 성향, 전통적 성역할 태도 및 정서적 공감이 동성애공포에 미치는 영향: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3), 431-453.

김진이 (2017). 가족의 거부로 인한 성소수자

www.kci.go.kr

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합의적 질적 연구(CQR).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23(4), 605-634.

김철권 (2013). 게이와 레즈비언을 다룬 영화가 의과대학생의 동성애와 동성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영화연구, 56, 103-128.

김형지, 신정훈, 연규진, 김향숙 (2015).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대학생 남성의 사회불안 경험과 사회적 지지 특성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4), 811-841.

박도담, 유성경 (2019). 한국판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 (Korean version of the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Scale; K-SOMS)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3), 899-927.

박정은 (2013).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불편감이 상담자 정보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 동성애 내담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청구논문, 서울대학교.

박정은, 남궁미, 정서진 (2019). 동성애자 내담자의 상담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여성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4), 997-1021.

서영석, 이정림, 강재희, 차주환 (2007). 상담자의 동성애혐오반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213-237.

서영석, 이정림, 차주환 (2006). 성역할태도, 종교성향, 권위주의 및 문화적 가치가 대학생의 동성애혐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177-199.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17). 2017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의미와 쟁점. 서울: 서울대학교.

신경희 (2017). 종교적 정체성에 따른 여성 예비교사들의 성소수자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33(2), 245-279.

신경희 (2019). 성소수자 예비교사의 현장실습 경험 분석 연구. 교육문화연구, 25(4), 485-508.

여기동, 이미형 (2006). 한국 남성의 동성애 성정체성 발달과정과 정신건강. 정신간호학회지, 15(3), 289-298.

연합뉴스 (2018.3.17.) 한국 정부, 사형제 폐지 · 대체복무제 도입 유엔 권고 불수용.

우사라, 유성경 (2015). 상담자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동성애자 상담 유능감에 따른 임상적 판단 및 반응.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 311-334.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유엔 시민정치 권리규약 위원회 (2015). 최종 권고문. 제네바: 유엔 시민정치 권리규약 위원회.

이경민 (2015.6.17.) 조계종, 부처님 자비로 성소수자(LGBT) 보듬다. 불교신문.

이봉재 (2006). 동성애에 대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태도 관련요인 연구. 사회과학연구, 22(2), 1-19.

이지하, 심다연, 양민옥, 김혜선 (2014). 성행동과 자아존중감이 대학생의 동성애 혐오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3(1), 543-553.

이호림 (2015). 소수자 스트레스가 한국 성소수자(LGB)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청구논문, 서울대학교.

일 다 (2016). 청소년전화 1388 "동성애는 치료를…" 황당한 상담. http://m.ildaro.com/7626

임은미 (2016). 한국 상담자를 위한 사회문제

www.kci.go.kr

옹호 척도의 타당성 검증. 상담학연구, 17(4), 51-70.

장지윤, 안현의 (2018). 한국판 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2), 273-295.

정애경, 김태선 (2016). 다문화 상담심리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게재 논문 내용분석(1988-2015). 학교교육연구, 1(2), 1-24.

조대훈 (2011). 동성애에 대한 교수적 태도의 영향 변인 연구. 시민교육연구, 43(1), 205-237.

최가희 (2018). 사회정의와 상담심리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2), 249-271.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 (2019. 02. 14.). 〔상벌 및 윤리위원회〕 준회원 제명 기사에 대한 학회의 입장.

한국성소수자연구회(준) (2016). 혐오의 시대에 맞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12가지 질문. 서울. (ISBN 979-11-952856-2-4)

한국행정연구원 (2018).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Alden, H., & Parker, K. (2005). Gender role ideology, homophobia and hate crime. *Deviant Behavior, 26*, 321-343.

Asta, E. L., & Vacha-Haase, T. (2013). Heterosexual ally development in counseling psychologis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1*(4), 493-529.

Barritt, L., Beekman, T., Bleeker, H., & Mulderij, K. (1985). *Researching educational practice*. Grand Forks: University of North Dakota.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Boeije, H. (2002). A purposeful approach to the constant comparative method in the analysis of qualitative interviews. *Quality and quantity, 36*(4), 391-409.

Britton, D. (1990). Homophobia and homosociality. *The Sociological Quarterly, 31*(3), 423-439.

Cachia, M., & Millward, L. (2011). The telephone medium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A complementary fit. *Qualitative Research in Organizations and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6(3)*, 265-277.

Christopher, A. N., & Mull, M. S. (2006). Conservative ideology and ambivalent sexism,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0(2)*, 223-230.

Creswell, J. W. (201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7에 출판).

Drabble, L., Trocki, K. F., Salcedo, B., Walker, P. C., & Korcha, R. A. (2016). Conducting qualitative interviews by telephone: Lessons learned from a study of alcohol use among sexual minority and heterosexual women. *Qualitative Social Work, 15*(1), 118-133.

Fassinger, R. E. (1991). The hidden minority: Issues and challenges in working with lesbian women and gay me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9(2)*, 157-176.

Glaser, B. (1965). The constant comparative method of qualitative analysis. *Social Problems, 12(4)*, 436-445.

Gonsiorek, J. C. (1991). The empirical basis for the demise of the illness model of homosexuality. In J. C. Gonsiorek & J. D. Weinrich (Eds.), *Homosexuality: Research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pp. 115-136).

www.kci.go.kr

Thousand Oaks, CA, US: Sage.

Haslam, N., & Levy, S. R. (2006). Essentialist beliefs about homosexuality: Structure and implications for prejud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4), 471-485.

Herek, G. M. (1990). The context of anti-gay violence: Notes on cultural and psychological heterosexism.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3), 316-333.

Ji, P., & Fujimoto, K. (2013). Measuring heterosexual LGBT ally development: A Rasch analysis. *Journal of Homosexuality, 60*(12), 1695-1725.

Levina, M., Waldo, C. R., & Fitzgerald, L. F. (2000). We're here, we're queer, we're on TV.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0*(4), 738-758.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Vol. 75). Newbury Park, CA: Sage.

Nadal, K., Whitman, C., Davis, L., Erazo, T., & Davidoff, K. (2016). Microaggressions toward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and genderqueer people: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Journal of Sex Research, 53*(4-5), 488-508.

OECD, 2017. Evolution of the acceptance of homosexuality in OECD countries between 1981-2000 and 2001-2014. https://twitter.com/OECD_Social/status/877877401916592129

Platt, L. F., & Lenzen, A. L. (2013).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and the experience of sexual minorities. *Journal of Homosexuality, 60(*7), 1011-1034.

Rich, T. S. (2017). Religion and public perceptions of gays and lesbians in South Korea. *Journal of homosexuality, 64*(5), 606-621.

Roets, A., Van Hiel, A., & Cornelis, I. (2006). Does materialism predict racism?.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0*(2), 155-168.

Smith, L., Shin, R., & Officer, L. (2012). Moving counseling forward on LGB and transgender issues speaking queerly on discourses and microaggress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0*(3), 385-408.

Worthington, R. L., Dillon, F. R., & Becker-Schutte, A. M. (2005). Develop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Lesbian, Gay, and Bi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Scale for Heterosexuals (LGB-KAS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1), 104-118.

원 고 접 수 일 : 2019. 09. 03
수정원고접수일 : 2019. 11. 11
게 재 결 정 일 : 2020. 01. 17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0, Vol. 32, No. 2, 583-608

Exploring South Korean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s Same-Sex Relationships, Lesbians, and Gays: A Qualitative Study

Ae-Kyung Jung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Assistant Professor

Eunhui Yoon
Florida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and Learning Systems, Assistant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ploring South Korean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s same-sex relationships(SSR), lesbians, and gays(LGs). The authors of the study interviewed 12 adults who identify as cis-gender heterosexuals. After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was used, the following themes emerged: 1) Paths to learning about SSR and LGs, 2) Feelings of discomfort with SSR and LGs, 3) Beliefs in the origins of same-sex attraction, and LGs identities, 4) Expectations of hetero-based relationships, marriages, and reproduction as the norm, 5) Belief that discrimination of sexual minorities does not even exist, and not wanting to be aware, 6) Willingness to better understand SSR, and LGs, 7) Beliefs that Korean-specific cultural norms must be maintained, and 8) Opposition against violence and hate speech to sexual minorities, but beliefs that sexual minorities need to take more action to advocate for themselve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in the social justice context.

Key words : heterosexual-attitude, sexual-orientation, same-sex-relationship, heteronormativity, sexual-minority, qualitative-study, constant-comparison-method

www.kci.go.kr